

치솟는 산업용 가스값에 제조업 원가 ‘비상’

원자재·전기료 이어 숨은 비용 급부상…기업 부담 가중
질소·산소·아르곤 가격 ↑…생산 늘수록 비용 ‘눈덩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에 이어 산업용 가스 가격까지 오르면서 전남광주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필수 생산재인 산업용 가스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숨은 원가’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제조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는 산소와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CO₂), 수소 등을 말한다. 철강과 자동차부품, 조선

기자재, 금속가공, 반도체, 식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절단과 용접, 레이저 가공,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전남광주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광주 평동·하남산단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업용 가스 사용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급형, 철강,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생산 공정 대부분에서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가격 변동이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최근 수년간 산업용 가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배경으로 전기요금과 물류비, 에너지 비용 증가를 꼽는다.

산업용 가스는 공기를 액화·분리하고 압축·저장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변동에 민감하다.

운송 과정 역시 특수용기와 탱크로리 등을 이용해야 해 물류비 부담도 크다.

다만 산업용 가스는 기업 간 계약 방식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품목별 공식 가격 통제는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 주요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들이 전기요금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 단가를 잇달아 조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산업용 가스 가격이 원자재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와 자동차, 금속가공 업체들은 질소와 아르곤 사용량이 많아 가스비만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늘어난 업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용 가스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사용량도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여서 기업 입장에서선 절감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평동산단의 한 금속가공업체는 레이저 절단과 용접, 절곡 등의 공정에서 질소와 산소, 아르곤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한 달 평균 질소 100t, 산소 20t, 아르곤 8t을 사용하며 현재 산업용 가스 비용은

월 약 228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산업용 가스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월 부담은 약 25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 인상 시에는 2800여만원까지 증가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약 2700만~54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업체 관계자는 “용접과 절단 공정이 많은 업체는 산업용 가스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한다”며 “예전에는 철관 가격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가스값도 원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사이 질소와 산소 가격은 계약 조건에 따라 20~30% 정도 올랐고, 아르곤은 공급 부족이 심했던 시기에 40% 이상 오른 사례도 있었다”며 “생

산량이 줄지 않는 이상 사용량을 줄일 방법이 없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가스 가격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원자재와 전기요금은 자주 거론되지만 산업용 가스 역시 제조공정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생산 요소다”며 “전남광주는 자동차부품과 철강, 조선기자재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용 가스 가격 변동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윤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산단공, 기업 지방투자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보조금…중고장비 투자비 인정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의 보조금 신청, 투자 이행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산단공은 최근 개정된 산업통상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맞춰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임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투자비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국산 기계·장비를 70% 이상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한다. 기존에는 인정받기 어려웠던 중고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던 고용·면적 유지 의무는 신규 투자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여러 업종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단공은 지방투자 러닝메이트를 통해 투자 초기부터 완료 이후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는다. 투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재무·금융 분야의 애로사항은 전문가와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결한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는 투자 이행사항 점검과 정산 검증, 사후관리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aT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마닐라 국제식품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aT, 필리핀서 K-푸드 시장 공략 속도

국제식품박람회서 952만달러 수출 상담 등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필리핀 최대 식품박람회에서 950만달러가 넘는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시아 K-푸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T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마닐라 국제식품박람회(WOFEX)’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WOFEX는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태국 등 국가

관을 포함해 800여개 식품기업이 참가하고 약 5만명의 식품 바이어와 관람객이 찾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박람회다.

필리핀은 K-푸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핵심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대필리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496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하며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3990만달러로

43.1% 증가했고, 과자류는 1219만달러(6.5%), 음료는 1132만달러(9.9%)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수출기업 12개사가 참가해 음료와 과자, 김 등 주력 품목은 물론 냉동 가정간편식(HMR), 연유아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최근 검역 협상이 타결돼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이 재개되는 한국산 포도는 신선식품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시식 행사도 호응을 얻었으며, aT는 하반기 현지 론칭 행사를 통해 한국산 포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박셀바이오, 글로벌 신약 개발 ‘시동’

캐나다 바이오기업과 협약

박셀바이오는 캐나다 바이오기업 마이엘라마(Myellama)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NRC)의 차세대 NK세포 인계이저(NK Cell Engager) 기술을 기반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NRC와 오타와대학교의 연구기술, 마이엘라마의 기술사업화 역량, 박셀바이오의 동종 NK세포 플랫폼 및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제조·임상 개발 역량을 결합한 글로벌 공동 연구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다발골수종을 대상으로 NK세포 인계이저 단독요법

과 동종 NK세포 병용 치료 전략의 효과를 공동 평가한다. 환자 유래 검체와 전임상 모델을 활용해 항종양 효과와 작용기전을 분석하고, mRNA 기반 전달기술 등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이엘라마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NRC 기술은 Fc 융합(Fc-fusion) 설계를 적용, 혈중 반감기를 크게 늘리고 우수한 항암 활성을 확인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 239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번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술

공사명	분묘 소재지	분묘 가수	분묘 번호	위치 (STA)	비고
총 계					
화순동면-송광봉산	전남 순천시 송광면 무산리 산129-4	1	No16	STA. 3H-100(우)	당초 산 239-1
	전남 순천시 송광면 무산리 산115-5	1	No17-3	STA. 3H-000(3)	당초 산 113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무산리 산140-2	1	No21	STA. 4H-040(우)	당초 산 1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	STA. 6H-020(3)	당초 산 88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1	STA. 6H-450(우)	당초 산 88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	1	No42-2	STA. 6H-450(우)	당초 산 88

- 개장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공사(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
- 개장 후 안치장소: 남광당
-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5년
- 공고기간: 2026.6.26. ~ 2026.9.28.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개장방법: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연고자가 개장
- 신고처
 - 화순동면-송광봉산 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소: 061-852-7008
 - 우리 청 보성과: 063-850-9174

2026. 8. 5.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나의 소통코스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구글이디가 있도록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알림 설정까지!!

1004 신안 신의도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학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웅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시청문의 062)370-7077